

【P2-19】

미혼모의 임신 중 음주흡연이 산모의 영양상태와 임신결과에 미치는 영향

두미애*, 서희정, 김화영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식품영양학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미혼모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미혼모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잘못된 산전 관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임신 중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미혼모는 임신 중 음주와 흡연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 중의 음주와 흡연이 미혼모의 영양 상태와 임신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미혼모 보호 기관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임신 7~8개월의 미혼 임신부 57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정도, 식습관과 식이섭취를 조사하였고, 이 중 30명에게서 공복시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41명으로부터 임신 결과(임신 중 체중증가량, 신생아 체중)를 분석하였다. 이들 결과는 임신 중 흡연과 음주 경험에 따라 흡연군과 비흡연군, 음주군과 비음주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흡연군의 평균 연령은 20세로 비흡연군의 22.7세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흡연군은 우울증 정도와 결식 횟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혈액 성분 중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지표는 없었으나 빈혈 발생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흡연군의 영양소 섭취량은 비흡연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부분의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었고, 비타민 A의 섭취량만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 < 0.05$). 또한 흡연군은 임신 중 체중 증가량이 적은 경향을 보였으며, 흡연군에게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시 체중은 3.0kg이었고 비흡연군에게 태어난 신생아가 3.2kg으로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음주군의 평균 연령은 20세로, 비음주군 23.1세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 < 0.01$). 음주군의 우울증 정도와 주당 결식 횟수는 높은 경향을 보여 흡연군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음주군은 혈액 성분 중 아연이 유의적으로 낮았고($p < 0.05$), 빈혈 발생율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임신 중 음주 여부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음주군의 임신 중 체중 증가량은 13.6kg로, 비음주군의 12.2kg보다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신생아의 출산시 체중은 음주군이 3.0kg로 비음주군이 3.3kg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 < 0.05$). 임신 중 음주 기간과 신생아의 출산시 체중과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05$). 임신 중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한 경험한 대상자는 14명(24.6%)이었는데, 이들의 평균 연령은 낮았고, 우울증 경향과 빈혈 발생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신생아의 출생시 체중이 낮았다. 결론적으로 미혼모 중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 정도와 결식 빈도가 높고 빈혈 발생율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출산 시 체중이 낮아 임신 중 흡연 또는 음주는 산모의 건강상태와 임신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나이가 20대 전후로 어린 여성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산전 관리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01-PJ1-PG1-01CH15-0009)